

Atmosphere III.

진짜 능력은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속에서 만들어집니다.

1. 창조는 '순리'를 아는 것이다.

모든 세계는 창조의 섭리대로 움직인다. 창조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질서'와 '순리'를 아는 것이다. 순리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갈 수 없다. 순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 있는 자가 없는 곳으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부유함이 가난한 곳으로, 풍족함이 결핍이 있는 곳으로, 갑이 을에게로, 왕이 백성에게로, 부모가 자녀에게로, 목자가 양에게로 가는 것이다.

2.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독교의 핵심가치

[빌립보서 2:6-10]

- 6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10 그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순리적 삶이 표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도록 한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의 삶을 세상은 인정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의 사람이 되셨다. 그런 예수님의 하향적 삶을 세상이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경배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보여주신 하향적 삶이, 세상속에 있는 기독교가 붙잡아야 할 핵심가치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핵심가치를 붙잡지 않고 세상이 만든 핵심가치를 받아들였다.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없다.

3. 신앙은 '삶'을 해석하는 것이다.

신앙은 삶이다. 열두제자의 사명의 기반이 된 것은 그들의 지식, 훈련, 성품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다. 사역은 영적인 삶과 한 몸을 이룬다. 제자들의 사역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았던 삶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삶'에 대한 정의를 하지 못한다. 세상이 가치있다고 주장하는 '삶'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가치는 분명히 달랐다. 예수님은 다른 삶을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삶'으로 하늘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셨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세상이 자신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세상이 주는 삶의 공기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공기는 분명히 다르다. 예수님의 삶의 공기가 세상의 공기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잃고 있는 것은 '참다운 삶'의 정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삶은 사람들에게 피곤과 긴장과 두려움을 안겨준다. 그들은 진실한 삶에 대한 정의를 듣고 싶어한다. 그래서 교회를 찾는다. 그러나 교회가 보여준 삶의 정의가 그들이 세상속에서 정의하는 삶의 정의와 같기 때문에, 성도들은 길을 잃은 어린양의 모습으로 방황한다.

오늘날 교회가 외쳐야 메시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리적 삶'이다. 이 가치가 만들어질 때, 교회는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살아낼 수 있게된다.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와같은 가치가 먼저 정립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세상의 공기는 변화된다. 문화가 일어나게 된다. 문화는 삶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기에 강력하다. 한 번 형성된 문화는 핵심가치가 구조화 된 영역이기 때문에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문화는 중요하다.

4. 세상이 강조하는 역행의 삶 - 죄는 순리를 역리로 바꾸는 삶이다.

[로마서 1: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모든 최악의 근원은 욕심이다. 바울은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인지 로마서를 통해서 정의한다. ‘순리’를 ‘역리’로 바꾸는 삶이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를 떠나 역행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 역행으로 오는 부작용이 심하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의 첫 죄악은, 먹지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이라는 역행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때부터 세상은 역행하기 시작했다. 통치는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이며,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순리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행복을 거절했고, 그들만의 행복을 찾았다. 인간은 바벨을 만들어 아래에서 위로 통치하려 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리를 역행하여 올라가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순리가 역리가 되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땅을 향한 첫 계명과, 십계명의 첫 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것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순리라는 것이다. 이 순리가 정리된 것이 바로 계명이며 언약이다.

5. 상향성의 삶 - 정복의 논리

세상이 만들어내는 앳모스피어는 역행의 원리를 따른다. 바벨탑이 하늘로 상향성의 삶을 지향했듯이, 세상의 구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향성의 삶과는 다른 ‘상향성’의 구조이다.

‘성공’이 모든 삶의 핵심가치가 된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지향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향성의 생활양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인간의 삶의 방식은, 성공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이르는 것을 중심으로 짜여있다. 상승하는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상승할 때 얻는 보상이 주는 즐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다. 부모와 교사, 친구들, 심지어 교회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과업이라 가르친다.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한 오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은 살아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사랑마저 정복해야 할 대상, 또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쯤으로 여긴다. 따라서 삶은 우리가 승리하거나 패배하게 되는 일련의 투쟁으로 여겨진다.

6. 특별한 자가 되라.

세상은 특별한 자가 되라고 강조한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특별한 존재이며 모두가 특별하다. 부모에게 모든자녀가 특별한 것과 같다. 그러나 세상이 만들어 내는 특별함은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말한다. 보편성이 주는 아름다움과 일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거절한다. 평범함을 저주하며, 가장 능력없는 존재처럼 여기게 하는 문화이다. ‘너 같이 평범한 존재는 많다’라는 개념이다. 이 말은 ‘너 같은 존재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와 같다’는 것이다.

정글의 최고의 포식자 사자는 희귀하고 특별하다. 그러나 이름도 알 수 없는 곤충은 너무 많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는 개념이다.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사자나 이름없는 곤충 모두가 같다. 그래서 모두가 이름없는 곤충이 되지말고,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가 되라고 말한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이 말하는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적 특별함이 아니다. 보편적 특별함은 없다고 말한다. 남들과 다른 어떤 존재가 되어야 특별하다고 말한다. 이런 비교와 우등과 열등의 문화가 역행의 흐름을 만들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은 ‘하나님과 같은 특별한 존재’가 되라는 말이었다. 보편성과 평범성의 순리적 삶을 역행하도록 한 것이 바로 죄이다.

"특별한 존재가 되어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라", "억울하면 성공해서 좋은 차 타라",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 할 만한 존재가 되어라 (자격, 기준)" 라고 말하는 것이 역리의 구조이다. 사랑하면 결혼하는 것이 순리이다. "사랑이라는 순리가 밥 먹여주냐? 배고픔이 사랑이냐? 그러니 고생하지 않으려면 특별한 존재가 되어라. 세상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역리이다. 보편성을 거절하는 특별함의 메시지는, 구토가 나올만큼 인간을 숨가쁘게 몰아간다. 인간이 살고있는 보통의 현실은 보이지는 않는 특별함이라는 폭력으로 구타당한다.

7. 역리로부터 오는 갈등과 순리적 삶의 아름다움. - 초대교회

[사도행전 2:46-47]

46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여 주셨다.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역리로부터 출발한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보았다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돌보았다면, 이 땅에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공동체가 초대교회이다. 인간안에 있었던 모든 역리적 욕망을 순리로 바꾸었다. 그 안에 평강이 왔다.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칭찬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보통의 삶은 아름다웠다. 이들이 일으켜내는 순리적 공기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

초대교회의 능력있는 삶은 특별한 어떤 집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성령받은 그들이 한 것은 '날마다 맞이하는 평범의 일상' 을 살아낸 것 뿐이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 뿐인데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되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평범한 삶을 아름다운 가치로 살아낼 때, 진정한 하늘의 능력이 세상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순리적 삶의 일상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살아내자.

8. 성도의 삶은 순리적 삶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님의 탁월함은 시골의 평범함 속에서, 인간이라는 극히 제한된 육체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명심하자. 가장 특별한 분이 가장 평범한 인간의 삶에서 이루신 아름다움에 감사하자.

"진짜 능력은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만들어진다."